길에서 이 배지를 발견했다면?



길을 잃고 서성이는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NFC 배지를 확인**해 주세요.





❶ 태그하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켜고 배지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기



❷ 연락하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경찰(☎112)에 신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두고,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정신장애인(연령 무관)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❶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❷ 경찰서 방문 신청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 182

안전Dream 홈페이지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종아동찾기 및 사전등록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인천시민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남동경찰서 INCHEON NAMDONG POLICE STATION

ISSN 2384-2466

2026
SEP 09 | OCT 10

인천의정소식 VOL 165

vol. 165

The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의정소식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인천의정소식」
구독 신청하자!

「인천의정소식」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물론
인천의 다채로운 소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식지입니다.



구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QR코드 접속
전화 신청 032 - 440 - 6136

구독하기 과월호 보기

COVER STORY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물길을 곁에 두고 가볍게 달리는 계절.
걷기 좋은 길, 달리기 좋은 길 위에서
인천의 일상은 조금 더 가깝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인천의정소식

발행처 인천광역시의회
발행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쇄인 장병현(의회사무처장)
편집인 주명천(소통홍보담당관)
편집장 김혜경(소통홍보정책담당)
심의위원 신영희(시의원), 임현주(시의원),
노태손(시의원), 김명래(경인일보 기자),
이진(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영태(의정정책관),
주명천(소통홍보담당관), 조상모(의사담당관),
김윤정(입법담당관)
기획·편집 김민지
사진 김의식, 최민규
디자인·제작 웨스트코㈜
발행일 2026년 10월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소통홍보정책팀)
전화 (032)440-6136
홈페이지 www.icouncil.go.kr

인천광역시의회 SNS 채널

인천의정소식 누리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Contents

Vol.165
SEP 09 + OCT 10






04 **의장 인사말**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06 **상임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등 주요 의정 활동

14 **시의회 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뉴스
·2026년 의정캘린더

18 **5분 자유발언**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제안

22 **의회 AI**
AI로 보는 제313회 임시회 주요 안건

24 **의회 아카이브**
시간으로 만나는 인천시의회

28 **시민기자단**
현장 속 시민 리포트

37 **인천 여행.zip**
가을이 건네는 다섯 가지 이야기

43 **취향 발견**
WALK&RUN
도시를 만나는 두 가지 속도

50 **소통 플랫폼**
우리동네에서 만나는 초록빛 풍경

54 **독자 이벤트**
·인천의 가을 순간
·의회 속 숨은 공간 찾기

55 **독자 소리함**
독자 후기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우리는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커질수록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에 시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내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로 도약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은 시민의 참여와 자치의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으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인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313회 임시회
민의를 담아내는 상임위원회 활동



시민의 일상은 하나의 분야로 나뉘지 않는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부터 문화와 복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 환경과 교통, 아이들의 교육까지.
인천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수많은 현안은 시민의 삶 곳곳과 맞닿아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안을 세밀하게 살핀다.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와 예산,
각종 안건을 심사하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이어간다.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7개 상임위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제313회 임시회 7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1)
의회사무처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없음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구 신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보류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행정안전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29)

대변인,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 포함),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정책조정국, 소방본부(11개 소방서 및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포함),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재)인천연구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안건

·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수정가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정책조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원안가결
·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17)

문화체육국(문화예술회관, 인천도서관, 시립박물관 포함), 국제협력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포함), 통합돌봄국,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의료원,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없음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안건

·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통합돌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계양경기장 및 남동경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원안가결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문화예술회관 부설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원안가결
·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산업경제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26)

미래산업본부, 경제국,
농수산식품국(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12개 산하기관 포함),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기타 안건

· 2027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보고
· 2026년도 미래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미래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보고
·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보고
· 2026년도 경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도시건설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10)

해양항공국,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포함),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안건

·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제물포 복합문화 콘텐츠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보고
· 2026년도 원도심혁신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 2027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원안가결
· 2027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산업활성화-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환경교통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환경교통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9)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교통정책국,
철도도로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기타 안건

· 2027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기후에너지국 소관) 원안가결
·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2027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원안가결
· 2026년도 기후에너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기후에너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GTX-D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수정가결
· 2026년도 철도도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7년도 교통정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2026년도 교통정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대상기관(기관수: 31)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AI융합교육원,
교육연수원, 공공도서관(신트리·중앙·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교직원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난정평화교육원,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

제313회 임시회 심사 안건

제정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안건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인천 길 바로알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시의회 뉴스

COUNCIL NEWS

인천의 내일을 바꾸는 이야기는 시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더 편리하게 오갈 길을 고민하고, 배움의 기회를 넓히며, 지역의 현안을 풀기 위해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인천시의회의 의정 소식을 전한다.



1 인천시의회, "서울2호선 청라 연장·GTX-D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결의대회)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민·계양구1)은 9월 1일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함께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 인천시의회, 전문가와 함께 의정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는 9월 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3 인천광역시의회·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뜻 모아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대표의원 김명주)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대표의원 안광률)과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대표의원은 9월 7일 인천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4 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945억 규모 2회 추경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 예산을 우선시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5 인천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지난 9월 1일 '2026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에 이어 9월 2일 인천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6 인천시의회 행안위, 재난안전 '인식에서 실천으로' 전환 해법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9월 2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시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 인천시의회, 인천 바다패스 개선 시민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방지현(민·비례대표)·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이 9월 3일 인천 섬 주민들을 만나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정책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8 인천시의회 문복위,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 성공 개최 기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강화 고려궁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9 인천시의회 교육위, 건강코칭 사이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부결키로 했다.



10 인천시의회, 시교육청·협의회 머리 맞대 대안교육 실질 지원책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민·제물포구2)·정선영(민·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인천광역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캘린더

2026 CALENDAR

총 9회 122일(정례회 2회 55일, 임시회 7회 67일)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회기	회의 일수 (122일)	주요 처리 안건
제306회 임시회	1. 27. ~ 2. 12.	17	· 시정보고 · 시정질문(2. 9.~2. 11.) · 주요업무보고(계획)
제307회 임시회	3. 17. ~ 3. 31.	15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308회 임시회	4. 24.	1	· 추가경정예산안
제309회 임시회	4. 30.	1	·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0회 제1차 정례회	6. 11. ~ 6. 24.	14	·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311회 임시회	7. 1. ~ 7. 3.	3	·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제312회 임시회	7. 13. ~ 7. 24.	12	· 시정보고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13회 임시회	9. 1. ~ 9. 18.	18	· 시정질문(9. 9. ~ 9. 11.) ·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제314회 제2차 정례회	11. 5. ~ 12. 15.	41	·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 · 행정사무감사(11. 6. ~ 11. 19.) · 주요업무보고(실적) ·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시정질문(11. 20. ~ 11. 24.) · 2027 예산안

5분 자유발언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제안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다양한 현안이 놓여 있다.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생활환경부터 도시 발전과 정책 개선까지, 인천이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요 발언의 핵심을 짚어본다.

"일신119안전센터, 계획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피해 규모와 생사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생활권 가까이에 소방대응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일신119안전센터가 더 이상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문화복지위원회
김 동 민 의원

KEY POINT

- **골든타임 확보**
  화재·구조·구급 현장
  신속 대응 거점 필요
- **안전 공백 해소**
  경인철도·부개고가교로
  현장 도착 지연 우려
- **실행계획 마련**
  부지·예산·인력 배치 구체화

"의회 운영 필수 인력 충원과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추진해야"

자치입법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인력을 채워 주십시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소방의 역할에 맞게 인천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행정안전위원회
윤 재 상 의원

KEY POINT

- **의회 인력 충원**
  의회사무처 정상 운영 위한
  필수 인력 배치 촉구
- **인사협약 개선**
  시와 시의회 간
  인사 운영 기준 재정비 필요
- **소방 위상 강화**
  인천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직급 상향 건의

"강화~서울역 M버스 신설로 교통소외 해소하고 교통형평성 보장해야"

버스노선 하나가 없어 주민이 하루 4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감수할 불편이 아니라 행정이 해결해야 할 격차입니다.
강화 M버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강화군민에게 출퇴근길이고 병원을 가는 길이며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존의 길입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문화복지위원회
오 현 식 의원

KEY POINT

- **광역교통망 확충**
  강화~서울역을 연결하는
  M버스 노선 신설
- **교통형평성 보장**
  광역교통에서 소외된 강화군의
  교통 접근성 개선
- **인천시 적극 대응**
  대광위·관계기관 설득을 통한
  노선 신설 지원

"승기천 물길 되살려 원도심 재생과 도시 경쟁력 높여야"

승기천 물길 복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인천의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원도심 재생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승기천에 물이 다시 흐르는 날, 그 물길은 미추홀구의 희망이 흐르고 원도심의 미래가 흐르며 인천의 새로운 경쟁력이 흐르는 생명의 물길이 될 것입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문화복지위원회
김 오 현 의원

KEY POINT

- **물길 복원 계획 수립**
  승기천 복원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조속히 수립
- **단계별 실행방안 마련**
  교통대책과 재원 마련을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
- **사업추진 기반 확보**
  국비와 환경부 사업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천년고찰 용궁사,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경쟁력 높여야"

천년고찰 용궁사와 백운산이 영종주민의 안식처를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문화복지위원회
김 광 호 의원

KEY POINT

- **주차공간 확충**
  용궁사 일원
  공영주차장 후보지 검토
- **접근환경 개선**
  진입도로와
  차량 교행·회차공간 확보
- **실행계획 마련**
  시·구 재원 분담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중앙공원과 주변 상권 하나로 연결해 인천 대표 도심 문화상권으로 키워야"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상권은 단순히 골목상권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인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투자입니다.

제313회 제1차 본회의
(2026. 9. 1.)



행정안전위원회
임 애 숙 의원

KEY POINT

- **특성화 상권 조성**
  중앙공원과 음식문화거리를 연계한
  상권 특성화 종합계획 수립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상인·주민·청년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 민관 협력체계 마련
- **GTX-B 연계 강화**
  인천시청역에서 중앙공원·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 선제적 반영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공급, 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돼야”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북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검단 주민과 인천 북부권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iH와 LH의 공공기여를 조속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 BTL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도시건설위원회
양 인 모 의원

KEY POINT

생활 SOC 확충
도서관·체육관·문화센터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필요

공공기여 강화
iH·LH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 촉구

문화인프라 조성
북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검단·북부권 문화인프라 확충

“15년째 빈 땅으로 남은 국제학교 부지, 이제는 실행으로 답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협약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송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유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교육위원회
정 채 훈 의원

KEY POINT

국제학교 유치
송도 3공구 제2국제학교
조속한 추진 촉구

실행계획 공개
공모·선정·착공·개교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 제시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교육청·인천시·IFEZ 등
관계기관 역할과 책임 명확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편적 교통복지로 넓혀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닙니다. 배움과 문화, 체육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교육복지입니다. 인천시는 대상은 넓게, 지원은 실질적으로, 신청은 쉽게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교육위원회
장 수 진 의원

KEY POINT

지원 대상 확대
만 6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어린이·청소년 포괄

실질 지원 강화
환급·정기권 할인·통학 지원 등
체감 가능한 지원방안 검토

신청 장벽 완화
보호자 대리 신청과
학교·행정복지센터 연계 지원

“부평서중 부지, 미래교육·문화융합 복합거점으로 조성해야”

학생들의 미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8년 비워지는 부평서중 부지에 체험형 수학·과학 교육, AI 융합 교육, 첨단 기술 교육, 영상·음악·예술·문예·창작 등을 한데 묶은 원스톱 미래 교육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교육위원회
신 진 영 의원

KEY POINT

미래교육 거점
부평서중 유휴부지에
수학·과학·AI 체험공간 조성

AI 교육 확충
북부권 AI융합교육센터와
에듀테크 실습공간 구축

융복합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와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랩 조성

“아이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주소는 그저 아이가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원도심의 아이도, 신도심의 아이도, 섬마을의 아이도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통학하며 필요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사는 곳이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교육위원회
이 미 옥 의원

KEY POINT

교육격차 진단
돌봄·교육복지·문화·체육 등
지역별 교육 여건 종합 점검

안전환경 개선
노후 학교 시설과
통학로·보행 안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인천시·교육청·군구가 함께하는
교육격차 해소 실행계획 마련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역 연장, 주민 숙원 반영해 현실화해야”

단기적인 BC 수치에만 매몰되어 연안부두 철도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항만·관광산업 발전과 원도심 및 도서 지역 활성화라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용역 결과에 반영되어 연안부두역 연장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임시회 5차 본회의
(2026. 9. 18.)



도시건설위원회
윤 희 정 의원

KEY POINT

철도망 연장
용현서창선 기점을
연안부두까지 추가 연장 검토

정밀 타당성 확보
최신 교통 DB와 수요 예측으로
연장안의 객관적 근거 마련

주민 의견 반영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강화



한눈에 보는 AI 요약

제313회 임시회 주요 안건

복지와 안전, 교통·환경, 지역경제와 교육까지.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안건을 살피고, 더 나은 제도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어떤 안건이 다뤄졌고 시민의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다.



Q1 무엇을 논의했나요?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가까운 여러 안건을 살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경제, 교육 등 일상과 맞닿은 분야에서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논의했습니다. 수어통역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살예방처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정책부터 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차량 관리, 친환경 현수막 사용처럼 생활 속 불편과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안건도 다뤘습니다. 또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학생 안전과 학교급식 등 인천의 내일을 위한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Q2 의회는 무엇을 했나요?

각 상임위원회는 올라온 안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은 알맞게 쓰이는지,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논의가 충분한 안건은 의결하고,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보류하거나 부결했습니다. 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Q3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지원이 더 가까워지고, 안전과 복지 체계는 조금 더 촘촘해집니다.
오래 방치된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넓히는 등 도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변화도 이어집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학생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도 보완되면서 시민의 일상과 인천의 미래를 함께 챙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안건을 한눈에

안전·복지
- 수난구호활동 지원
- 수어통역센터 운영
- 자립준비청년 지원
- 자살예방

교통·환경
-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 주차장 제도 개선
-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역경제·산업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 경제교육 활성화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 지역상품 우선구매

교육
-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 학생맞춤통합지원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간으로 만나는 인천시의회

의회의 상징부터 기록, 오늘의 순간까지

의회의 역사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사봉부터 기록 속에 남아 있는 지난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인천시의회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본다.



의사봉에 담긴 이야기

한 번, 두 번, 세 번의 울림에 담긴 의회의 시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리는 순간, 하나의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사봉 3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세 번 두드릴까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리는 순간, 하나의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사봉 3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의사봉은 언제 울릴까요?

의사봉은 회의의 중요한 순간마다 울립니다. 본회의를 시작하는 개의와 회의를 마치는 산회, 잠시 회의를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는 정회·속개 때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립니다. 또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거나 질의와 토론을 마칠 때, 표결을 선포하고 의결 결과를 확정해 알리는 순간에도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립니다. 긴 회의 과정에서 의사봉 소리는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자, 의회의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록으로 만나는 인천시의회

인천의 지방자치, 기록으로 이어온 시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역대 의회의 주요 연혁을 비롯해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록, 의정활동 영상 등 의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록을 따라가며 인천의 지방자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61년 인천시의회 조직 제9주년 기념사진

1952

첫 지방의회의 시작

인천의 지방의회 역사는 1952년 제1대 인천시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12개 선거구에서 28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인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91

지방의회의 부활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서 제1대 인천직할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27개 선거구에서 27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중단됐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26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45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변화한 행정체제와 도시환경 속에서 새로운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한 장면이 내일의 기록이 됩니다

9월, 의회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시민의 삶을 살피고 인천의 미래를 고민한 하루하루가 모여 의회의 시간이 됩니다.
9월에도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인천시의회가 만들어간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한 장의 기록으로 만나봅니다.



1일

인천하늘중학교 제3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

3일

❶ 공동체 치안의 날 합동 순찰

❷ 202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❸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















2일

❶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현황 및 선제적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

❷ 돌봄노동자 근로실태를 통해 본 인천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❸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❹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시티를 넘어 AI 시티로







4일

❶ 전문직여성 인천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

❷ 인천 맞춤형 학생 AI 교육 생태계 구축 방향성 간담회

7일

인천광역시의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간담회





8일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개막식



9일

인천의용소방대 접견

PRESS 인천시의회 시민기자단

우리 동네에만 있답니다
세 동네에서 발견한 특별한 이야기

늘 오가던 동네에도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함이 숨어 있다. 오랜 시간을 품은 공간부터 지역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풍경까지. 강화군·옹진군·제물포구 시민기자 3명이 익숙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동네의 특별한 장소를 직접 찾아 나섰다. 인천시의회 시민기자단의 시선으로 발견한 '우리 동네에만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강화의 맛과 이야기를 만나는 곳,

왈순아지매

강화군 · 변재민 시민기자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오래된 골목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맛집일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나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화일 수도 있다.

강화에는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농업과 음식문화, 지역 특산물이 그중 하나다. 쌀과 순무, 인삼, 쑥 등 강화의 땅에서 자란 농산물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강화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농산물에서 끝내지 않고, 먹거리와 체험으로 이어가는 곳이 있다. 바로 강화의 '왈순아지매 농업회사법인'이다.

강화에서 자란 농산물의 새로운 모습

왈순아지매를 찾아가면 단순히 농산물을 사고파는 공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강화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이 식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방문객들은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농촌에서 생산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지, 지역의 특산물이 어떻게 새로운 상품이 되는지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왈순아지매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누룽지와 김부각, 각종 부각류, 원물수제차 등을 만들고 있다. 강화섬 콩나물과 강화도 쌀을 활용한 '콩나물 누룽지', 인삼·순무·쑥을 활용한 차 등은 강화의 농산물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살린 대표적인 상품이다.

특히 콩나물 누룽지는 강화에서 자란 농산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콩나물을 재배해 온 최월숙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섬 콩나물과 강화쌀을 결합해 콩나물밥을 만들고, 이를 다시 누룽지로 상품화했다. 흔히 생각하는 누룽지 하나에도 강화의 농업이 담겨 있는 셈이다.



강화만의 콘텐츠가 건네는 특별한 이야기

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고, 콩나물을 키우는 농부가 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농산물이 생산되고 가공돼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되는 과정 자체가 강화의 농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왈순아지매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것'은 상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강화의 농산물과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활동도 이어진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농산물은 대개 마트 진열대에서 먼저 만나는 대상이다. 쌀이 논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제 논과 농촌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 농촌에서 무엇이 자라고,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먹거리가 되는지 직접 보는 경험은 그래서 특별하다.

왈순아지매의 체험은 이러한 농촌의 일상을 방문객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강화의 농산물을 살펴보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를 만들어보는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직접 접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순무와 인삼 등 강화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강화만의 콘텐츠'가 된다.

강화의 순무를 직접 보고, 만지고, 차로 만들어 맛보는 경험. 강화에서 자란 농산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경험. 이것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강화의 기억을 만드는 선순환

농촌을 찾아온 사람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농산물을 보고, 그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생산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강화에서 경험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사람을 강화로 불러오는 선순환이다.

최월숙 대표가 오랜 시간 농업을 이어오며 만들어낸 '콩나물 누룽지' 역시 이런 변화의 한 사례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공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나아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화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의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있고, 그것을 키워온 농부들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농산물을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왈순아지매는 그 사이에서 강화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농산물은 상품이 되고, 상품은 체험이 된다. 체험은 다시 강화에 대한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사람들은 강화라는 지역을 단순히 '한번 다녀온 관광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기억하게 된다.

강화의 것을 가장 강화답게 보여주는 방법

강화에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농부들이 땅을 일구고, 지역의 농산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며, 방문객에게 농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상의 모습이야말로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풍경이다. 왈순아지매에서 만나는 한 잔의 차와 한 조각의 누룽지, 직접 참여하는 작은 체험 하나에도 강화의 땅과 사람, 시간이 담겨 있다.

지역의 특산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것'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강화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왈순아지매.

강화의 것을 가장 강화답게 보여주는 방법은 어쩌면 멀리 있지 않다. 농부가 키운 것을 먹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오늘도 강화의 농촌 한편에서는 그렇게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 강화군 고려저수지



바닷길 대신 열린 다리,

'삼형제 섬'의 새로운 길을 열다

옹진군 · 백민현 시민기자

푸른 바다 위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난 7월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하면서 신도·시도·모도, 이른바 '삼형제 섬'의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배를 타야 육지로 나갈 수 있었던 신도가 영종도와 도로로 연결되고, 기존 연도교로 이어진 시도와 모도까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이동 여건은 한층 편리해졌다.

다리 하나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인 데 그치지 않는다. 의료와 통학, 출퇴근, 생업은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제 배 끊길 걱정 없습니다”… 달라진 섬 주민의 하루

과거 북도면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가는 일은 여객선 운항 여부와 기상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다.

특히 안개나 강풍 등으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육지의 병원을 이용해야 할 때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육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영종도와 인천 도심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통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 장보기 등 일상적인 생활도 한층 편리해졌다. 주민들에게 신도평화대교는 관광을 위한 다리에 앞서 ‘일상의 다리이자 생활의 길’인 셈이다.

배 없이 찾는 섬… 수도권 가까운 섬 여행지로 새로운 가능성

교통환경의 변화는 관광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과거에는 배 시간을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이용해 영종도에서 신도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신·시·모도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세 섬은 각각 다른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시도의 수기해변과 해안 풍경, 모도의 배미꾸미 조각공원, 신도와 시도·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와 해안도로 등은 자동차 드라이브는 물론 자전거와 도보 여행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에서 가까운 지리적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신·시·모도는 수도권 시민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섬 여행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유입 기대 커져… 주민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섬을 찾는 길이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지역 현안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말과 휴일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될 경우 좁은 마을 도로의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주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 수 자체보다 관광객의 방문이 실제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이어지는가이다. 차량으로 섬에 들어와 주요 관광지만 둘러본 뒤 곧바로 빠져나가는 ‘통과형 관광’에 머문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체류형 상생 관광’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넓혀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판매, 어촌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카페와 숙박시설, 섬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걷기길, 예술·생태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전거와 도보 중심의 친환경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관광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섬을 관광하는 것’에서 ‘섬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관광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시·모도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 장봉도도 함께 봐야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같은 북도면에 속한 장봉도다. 신도·시도·모도가 육로 중심의 생활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봉도는 여전히 여객선이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북도면의 교통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봉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여객선 운항체계와 주민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장봉도가 가진 해안과 갯벌, 트레킹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신·시·모도와 연계하는 ‘북도면 통합 관광 전략’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의 발전이 또 다른 섬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옹암해수욕장

다리를 놓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

신도평화대교는 단순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에게는 의료·교육·생활권을 넓혀주는 생활의 길이고, 지역에는 관광과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의 길이다. 더 나아가 서해 지역의 미래 교통망과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신도평화대교의 진정한 평가는 개통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 다리가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주차,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시·모도뿐 아니라 장봉도를 포함한 북도면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의정 과제는 ① 주민 교통편의와 이동권 보장 ②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환경 대책 ③ 지역 소비와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④ 장봉도와 신·시·모도를 아우르는 북도면 통합 관광 전략으로 모아볼 수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물론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 “다리가 섬과 육지만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관광객, 관광과 지역경제, 신·시·모도와 장봉도의 미래까지 연결할 때 신도평화대교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될 것이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천의 첫 순간,

대불호텔

제물포구 · 한보현 시민기자

인천 개항장 거리를 걷다 보면 붉은 벽돌과 하얀 창문이 어우러진 서양식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건물 정면에는 금빛으로 '대불호텔전시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지금은 숙박객을 맞는 호텔이 아닌 전시관이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이곳에는 인천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머물던 호텔이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알려진 대불호텔이다.

개항장 거리에서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대불호텔의 시작은 인천이 개항한 1883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항 이후 제물포에는 외국인의 왕래가 늘어났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없었다. 인천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서울로 이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해지면서 대불호텔이 등장했다. 1883년 말에서 1884년 초 일본식 목조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시작했고, 1888년에는 벽돌로 지은 3층 규모의 서양식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대불호텔이 어떻게 탄생하고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옛 사진 속 대불호텔의 모습을 현재 건물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었다.

특히 전시관 바닥 일부는 유리로 되어 있다. 아래쪽으로 대불호텔 터에서 발견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2011년 이곳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지하에서 대불호텔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고, 이후 옛 호텔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관이 조성됐다. 현재의 건물 자체가 1888년부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 오래된 커피잔 앞에서
> 잠시 100여 년 전
> 인천을 상상해
> 보는 것은 어떨까.



100여 년 전 호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시관을 둘러보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의 호텔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대불호텔은 단순히 잠만 자는 여관과는 달랐다. 서양식 건물에 침구를 갖춘 객실과 피아노가 놓인 연회장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시관에는 당시 호텔 객실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침대와 화장대, 커다란 거울, 탁자와 의자, 조명까지 놓여 있었다. 벽면과 가구까지 옛 서양식 객실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문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시 호텔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지금의 호텔과 비교하면 소박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1880년대 조선의 풍경 속에 이런 객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전시된 옛 사진과 모형을 보고 다시 객실을 바라보니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긴 항해 끝에 인천항에 도착해 낯선 조선을 처음 마주한 외국인들에게 대불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 이상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대불호텔의 등장은 당시 제물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1883년 개항 이후 제물포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이 됐다. 대불호텔을 비롯해 여러 새로운 시설과 제도가 인천에 등장했다.

호텔에서 마주한 낯선 음료, 커피

객실만큼 눈길을 끈 것이 찻잔과 주전자 등 서양식 식기였다. 전시관 한쪽에는 당시의 식문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 식기와 차 도구가 전시돼 있다. 지금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대불호텔이 운영되던 시기의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식 음식과 음료는 낯선 문화였을 것이다.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초기 커피 문화를 이야기할 때도 종종 등장하는 장소다. 다만 대불호텔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판매한 곳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항장을 통해 서양식 음식과 음료 문화가 들어오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편이 적절하다.

전시관에서 커피잔과 식기를 보고 있자니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인천 개항장 거리에도 카페가 많다. 주말이면 오래된 건물과 골목을 찾아온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시간을 100여 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조차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긴 시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최초'보다 더 흥미로운 인천의 이야기

대불호텔을 찾기 전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라는 사실에 눈길이 갔다. 하지만 전시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최초'라는 기록보다 그 호텔이 왜 인천에 생겼는지가 더 흥미롭게 다가왔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항구를 통해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도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축물과 음식, 생활방식도 함께 들어왔다. 대불호텔 역시 그 변화 속에서 태어난 공간이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였던 만큼 인천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장소가 많다. 대불호텔 주변 개항장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근대 건축물과 박물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대불호텔은 단순히 오래된 호텔 하나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100여 년 전 인천항에 도착했던 외국인, 그들이 묵었던 서양식 객실, 식탁에 놓였을 서양식 음식과 음료, 그리고 서울로 향하던 사람들까지. 작은 호텔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개항기 인천의 풍경과 만나게 된다.

전시관을 나와 다시 붉은 벽돌의 건물을 바라봤다. 오늘날 개항장 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건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천이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시작했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개항장 거리를 찾는다면 대불호텔 앞에서 사진만 찍고 지나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보길 권한다. 그리고 전시관에 놓인, 오래된 커피잔 앞에서 잠시 100여 년 전 인천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누리는 일상의 시작이, 생각보다 가까운 인천의 한 골목에 남아 있다.

인천 황금빛 여행지

가을이 건네는 다섯 가지 이야기

가을의 빛은 머무는 곳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만든다.
섬의 언덕에서는 억새가 바람을 따라 일렁이고, 습지에는 키 큰 갈대가 황금빛 물결을 이룬다. 천년고찰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고요한 산사를 환하게 밝히고,
너른 들녘에서는 알곡을 품은 벼가 계절의 결실을 알린다.
짧아서 더욱 찬란한 가을, 인천 곳곳에 내려앉은 다섯 가지 풍경을 만나러 간다.



01 바람이 빚은 가을의 섬 **굴업도**

02 붉은 풍차 결, 갈대가 춤추는 습지 **소래습지생태공원**

03 시간을 품은 황금빛 가을 **인천대공원**

04 풍경 소리 따라 깊어지는 산사의 가을 **전등사**

05 바람 따라 익어가는 드넓은 들녘 **교동도**

+ 여행 PLUS



목기미해변

굴업도의 동섬과 서섬을 이어주는 넓은 모래해변이다.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지는 독특한 지형으로, 연평산과 덕물산으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코끼리바위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굴업도의 대표적인 해식 지형이다. 코끼리가 바다를 향해 코를 늘어뜨린 듯한 모습으로, 썰물 때 그 형태가 온전히 드러난다.



바람이 빚은 가을의 섬

굴업도

덕적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굴업도는 닿기까지의 수고마저 여행의 일부가 되는 섬이다. 크기는 작지만 굽이치는 능선과 드넓은 초원, 바다를 향해 열린 풍경만큼은 어느 섬보다 깊고 넉넉하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별칭이 낯설지 않은 이유도, 사람의 손길보다 자연의 시간이 더 짙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지면 개머리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억새로 가득 찬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비탈을 따라 숨을 고르며 걷다 보면, 바람이 지날 때마다 무릎 높이의 억새가 한 방향으로 몸을 눕힌다. 은빛으로 일렁이던 억새는 오후의 햇살이 기울수록 서서히 황금빛을 머금고, 언덕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빛과 바람, 바다의 표정이 달라져 쉽게 발길을 재촉할 수 없다.

굴업도의 가을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해가 서쪽 바다에 가까워질 무렵이다. 낮 동안 선명했던 풍경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으면 언덕과 억새, 바다가 하나의 색으로 이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를 천천히 걷는 동안 여행자도 어느새 그 황금빛 풍경의 일부가 된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붉은 풍차 곁,
갈대가 춤추는 습지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들어서면 풍경은 금세 다른 시간으로 넘어간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옛 염전과 드넓은 갯벌, 그 위를 천천히 스치는 바람이 소래만의 고요한 풍경을 빚어낸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갈대다. 잘 다듬어진 생태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사람 키만큼 자란 갈대가 길 양옆으로 빼곡히 이어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물결이 습지 전체로 번져 나간다. 갈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걷는 동안 바람에 잎이 부딪는 사각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발걸음을 느긋하게 만든다.

소래습지의 상징인 빨간 풍차와 끝없이 일렁이는 갈대밭이 한 화면에 담기는 순간은 이곳의 가을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갈대 아래 갯벌도 계절을 맞아 풍성한 빛으로 채워진다. 소금기 어린 땅에 뿌리내린 칠면초를 비롯한 염생식물은 붉고 짙은 빛으로 물들어 황금빛 갈대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소박한 염전 풍경과 갯벌의 생명, 바람을 따라 출렁이는 갈대가 한데 어우러진 소래습지에서는 화려하지 않아 더욱 깊고 따뜻한 가을을 만날 수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1-55

+ 여행 PLUS



소래역사관

소래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소래 갯벌과 염전,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 지역의 옛 모습과 생활상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소래포구 대표 명소다. 활기찬 시장 풍경을 둘러보고 제철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 여행 PLUS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 생활소품 및 DIY 가구를 직접 제작해 보는 공간이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체험장이다.



인천수목원

인천 도서·해안과 육상의 주요 식물종을 수집·전시하고 보전·연구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자연 체험행사도 운영해 가족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시간을 품은 황금빛 가을

인천대공원

가을이 깊어질수록 인천대공원은 계절이 지닌 가장 풍성한 색으로 채워진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호수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노랑과 주홍, 붉은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낙엽이 길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다. 빼곡한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시민이 찾는다. 울긋불긋한 단풍길과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길, 잔잔한 호수에 비친 가을 숲은 저마다 다른 빛깔로 계절의 한가운데를 펼쳐 보인다.

인천대공원 동문을 지나 장수동 만의골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곳의 가을을 상징하는 특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약 80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장수동 은행나무다. 사방으로 힘차게 뻗은 가지마다 노란 잎이 빼곡히 내려앉으면,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 주변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이 나무는 역사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이어지는 공원에서 시작해 묵묵히 시간을 품어온 은행나무 앞에 이르는 길. 인천대공원의 가을은 화려한 풍경을 넘어, 오래 머물러 바라보고 싶은 계절의 깊이를 전한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79

풍경 소리 따라 깊어지는 산사의 가을

전등사

삼랑성 안에 자리한 전등사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천년고찰이다. 성문을 지나 완만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울창한 나무 사이로 고즈넉한 전각이 모습을 드러내고, 도시에서 가져온 분주한 마음도 어느새 잦아든다. 가을이 깊어지면 전등사의 풍경은 한층 더 풍성해진다. 산사를 에워싼 나무들이 노랑과 주홍, 붉은빛으로 물들고, 햇살을 머금은 단풍은 오래된 기와와 담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령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다. 가지마다 빼곡히 매달린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고요한 경내가 환하게 밝혀지고, 바람을 따라 흩날리는 은행잎은 산사에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린다. 처마 끝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와 발아래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까지 더해지면 걷는 시간마저 하나의 명상처럼 느껴진다. 매년 10월 무렵에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열려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만날 수 있다. 깊어가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오래된 역사, 산사의 고요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 전등사의 가을은 화려하게 앞서기보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 여행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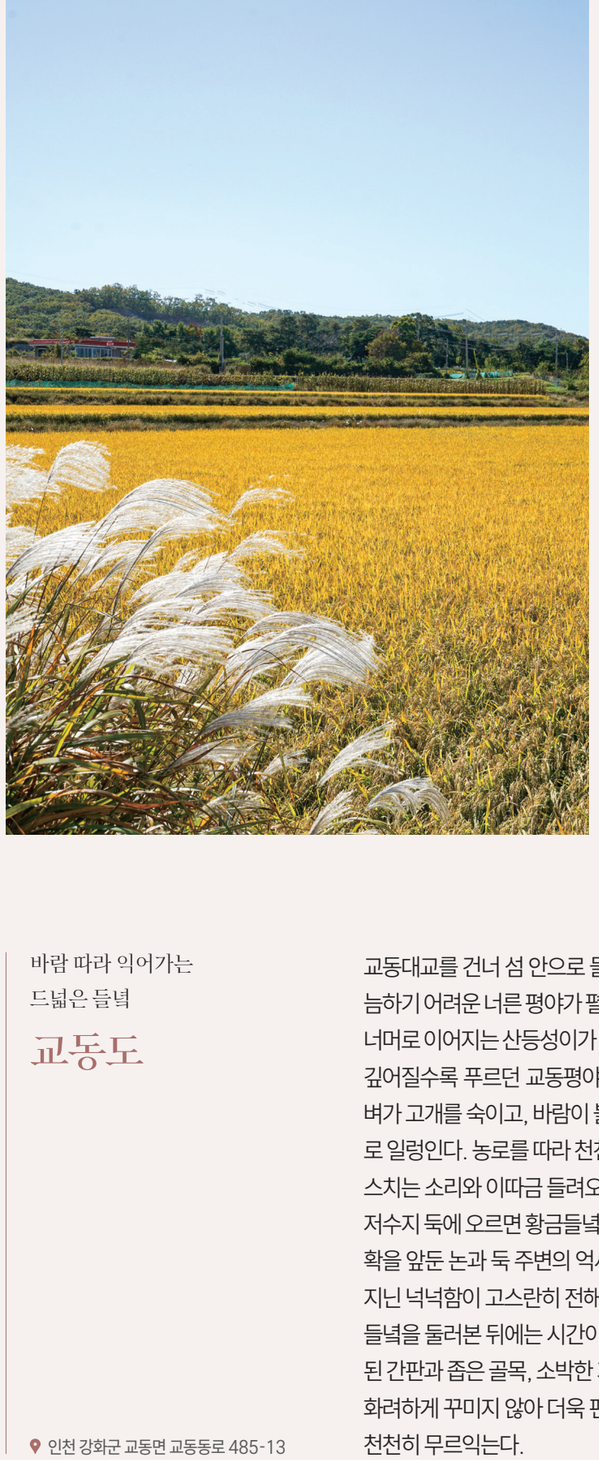
초지진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요새다. 성벽과 포대를 둘러보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강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동막해변

넓은 백사장과 갯벌이 함께 펼쳐지는 강화도의 대표 해변이다. 특히, 해변 좌측에 설치된 'Dong막' 조형물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에 의해 자주 소개되는 장소다.



바람 따라 익어가는
드넓은 들녘

교동도

교동대교를 건너 섬 안으로 들어서면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건물 대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너른 평야가 펼쳐진다. 사방으로 곧게 뻗은 농로와 낮은 마을, 그 너머로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교동도 특유의 한적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푸르던 교동평야는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든다. 알곡을 가득 품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들녘 전체가 잔잔한 물결처럼 한 방향으로 일렁인다. 농로를 따라 천천히 걷거나 차창을 열고 달리다 보면 바람에 벼가 스치는 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새 울음만이 넓은 들판의 고요를 채운다. 난정저수지 둑에 오르면 황금들녘과 저수지, 멀리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수확을 앞둔 논과 둑 주변의 억새·갈대가 어우러진 풍경에서는 교동도의 가을이 지닌 넉넉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들녘을 둘러본 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대룡시장 골목을 거닐어도 좋다. 오래된 간판과 좁은 골목, 소박한 가게마다 섬사람들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 더욱 편안한 섬, 교동도의 가을은 황금빛 들판 사이에서 천천히 무르익는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 여행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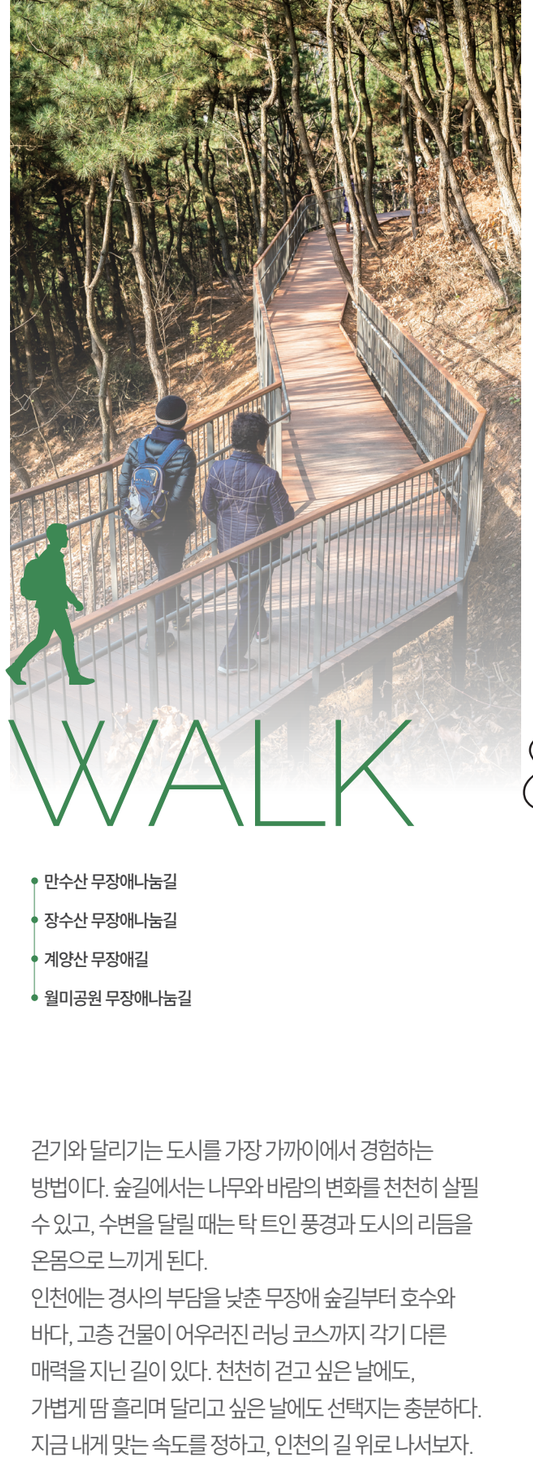
대룡시장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고향의 시장을 본떠 만든 곳이다. 오래된 상점과 골목 풍경이 남아 있어 교동도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화개정원

교동도 화개산 자락에 조성된 정원이다. 다양한 테마정원과 산책로를 따라 계절의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교동평야와 주변 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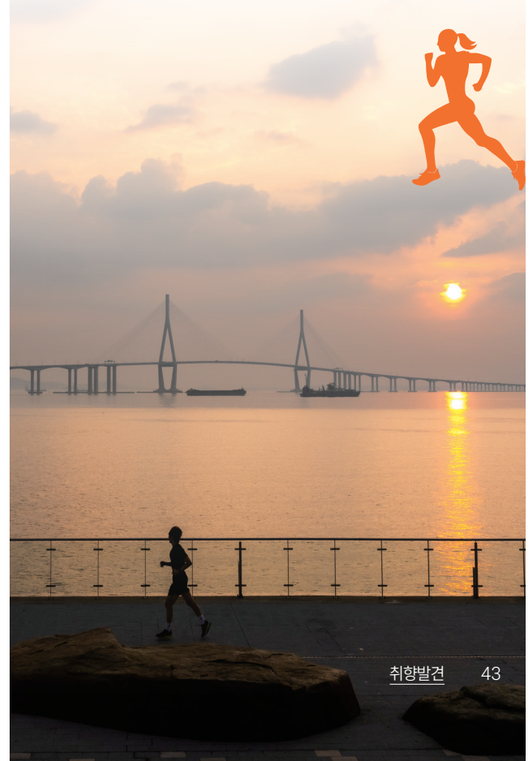
도시를 만나는 두 가지 속도

서곶근린공원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청라호수공원
경인아라뱃길

WALK & RUN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장수산 무장애나눔길
계양산 무장애길
월미공원 무장애나눔길

걷기와 달리기는 도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방법이다. 숲길에서는 나무와 바람의 변화를 천천히 살필 수 있고, 수변을 달릴 때는 탁 트인 풍경과 도시의 리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인천에는 경사의 부담을 낮춘 무장애 숲길부터 호수와 바다,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러닝 코스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길이 있다. 천천히 걷고 싶은 날에도, 가볍게 땀 흘리며 달리고 싶은 날에도 선택지는 충분하다. 지금 내게 맞는 속도를 정하고, 인천의 길 위로 나서보자.



WALK

천천히, 숲을 걷는 시간



WALK 1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전국에서 가장 긴 무장애 숲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4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은 가파른 계단 없이 해발 201m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형 무장애길이다. 핵심 구간은 총길이 2.23km의 순환형 목재 데크길로, 완만한 경사를 따라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진입부를 포함한 기존 2.75km 구간에 2026년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2.39km가 새롭게 연결되면서, 만수산 일대 무장애길은 총연장 5.14km의 전국 최장 규모로 확장됐다.

산행은 등산로 입구와 가까운 만부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시작하면 편리하다. 진입로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돼 있으며, 길 곳곳에 안전 난간과 휴게 쉼터, 야간 보행을 위한 LED 조명 등 이용자를 배려한 시설도 마련돼 있다. 목재 데크의 파손을 막기 위해 등산스틱과 아이젠 사용은 제한되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완만한 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잣나무숲과 만수동 전경 등 '만수 8경'을 차례로 만나는 재미도 있다. 마지막 지점인 정상의 무장애 전망대에서는 남동구 도심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산 정상의 풍경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열어준 길이라는 점에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WALK 2

장수산 무장애나눔길

숲과 나비를 잇는 길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산39-3

장수산 자락의 인천나비공원 주변에는 보행약자도 부담을 덜고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정식 명칭은 장수산 무장애나눔길로, 청천동 산3-2 일대에서 맑은내도시숲 방향으로 이어지는 총 0.7km 규모의 보행약자 배려형 숲길이다. 도심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나무 사이를 걸으며 가볍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산책로다.

숲길에는 목재 산책로와 황토길,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다. 기존 산길의 계단과 턱을 최소화하고 노면을 완만하게 정비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는 물론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도 보다 편안하게 숲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길 주변에는 구절초를 비롯한 야생화가 식재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숲길을 걷기 전후에는 인근 인천나비공원도 함께 둘러보자. 장수산 일대의 생태숲에 자리한 공원에서는 나비와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잘 어울린다. 무장애길과 생태공원을 함께 둘러보면 긴 산행의 부담 없이 장수산의 자연을 한층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WALK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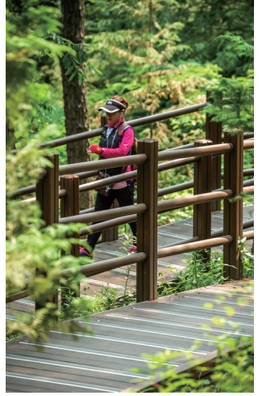
계양산 무장애길

자연과 예술을 따라 걷는 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52-30

계양산 동남쪽에 자리한 계양구 산림욕장에는 임학공원에서 무당골고개의 임학정까지 이어지는 무장애길이 조성돼 있다. 목재 데크와 황톳길, 마사토길 등을 포함해 총 1.2km 길이로, 가파른 계단 대신 완만한 길을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했다.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도 계양산 중턱까지 비교적 편안하게 오를 수 있다.

데크길은 이동하기에 넉넉한 폭을 확보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했다. 길을 따라 안전 난간과 나무 의자, 운동시설도 마련돼 있어 걷는 중간마다 쉬어가기 좋다. 데크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황톳길이 출렁다리 앞까지 이어지며, 숲속 황토 쉼터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맨발로 흙의 감촉을 느껴볼 수도 있다.



계양산 무장애길은 자연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신비와 걷고 싶은 길'을 따라 '드림', '선물', '꽃길' 등 일곱 점의 조각 작품이 설치돼 있어 길 전체가 작은 야외미술관처럼 이어진다. 사계절 들꽃정원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원, 치유숲길과 출렁다리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약 30분 동안 길을 따라 오르면 육각 정자인 임학정에 닿으며, 이곳에서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와 계양산둘레길로 길이 나뉜다.

편안한 걸음을 위해

01 무장애 구간 확인하기

무장애길이 산책로 전체에 조성됐는지, 일부 구간에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한다. 전체 거리와 소요시간뿐 아니라 반환 지점과 일반 등산로로 전환되는 구간도 살펴본다.

02 이동 장비 점검하기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한다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전동휠체어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코스 내 충전시설 유무도 알아두면 좋다.

03 안전하게 길 이용하기

정해진 산책로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서지 않는다. 목재 데크를 훼손할 수 있는 등산스틱과 아이젠은 코스별 이용수칙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WALK 4

월미공원 무장애나눔길

바다 전망으로 이어지는 숲길

인천 제물포구 월미로 131-22

인천항을 마주한 월미산에는 숲과 바다, 도심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월미공원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과거 군사 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덕분에 자연생태가 비교적 잘 보전된 곳이다. 완만한 데크형 산책로가 정상부까지 이어져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도 비교적 편안하게 월미산의 숲을 오를 수 있다.

산책로는 계단과 단차 없이 연결되며, 주요 구간에는 손잡이와 안전 난간, 점형블록과 안내표식이 설치돼 있다. 경사진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곳곳에 휠체어가 방향을 바꾸거나 서로 지나갈 수 있는 교행 공간과 휴식 구간을 마련했다. 울창한 수목이 만든 자연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나무 사이로 인천항과 서해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전기도 설치돼 있다.

높이 108m의 월미산 정상에 오르면 인천항과 인천대교, 서해의 섬과 인천국제공항 방향까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월미전망대와 정상광장, 예포광장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며, 해 질 무렵에는 서해로 내려앉는 낙조가 산책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무장애길 입구와 연결된 한국전통정원에서는 궁궐과 별서, 민가의 정원을 재현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걷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공원 안내소에서 정상광장까지 운행하는 '물범카'를 이용할 수 있다.

RUN

경쾌하게, 도시를 달리는 시간



RUN 1

서곶근린공원

한 바퀴 1km, 도심 속 순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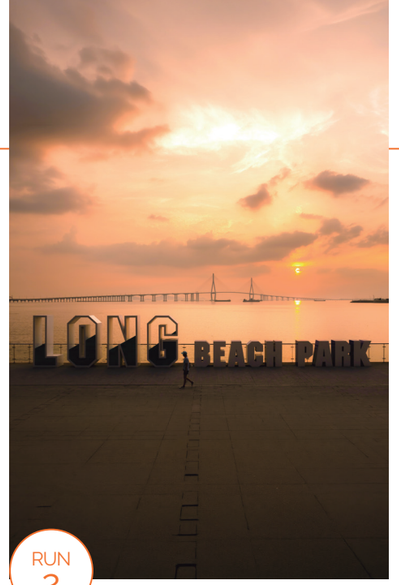
인천 서해구 심곡로 15

서곶근린공원은 일정한 코스를 반복해 달리기 좋은 도심형 러닝 장소다. 공원 내부를 한 바퀴 도는 약 1km의 트랙형 동선이 조성돼 있어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다. 한 바퀴 단위로 운동량을 계산하기 쉬워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 정해진 거리와 페이스에 맞춰 훈련하려는 러너에게도 활용도가 높다.



처음 한 바퀴는 빠르게 걸으며 몸을 풀고, 이후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속도와 횟수를 조절해보자. 1km부터 3km, 5km까지 목표 거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짧은 구간을 빠르게 달린 뒤 천천히 회복하는 반복 훈련에도 알맞다. 코스 주변으로 나무 그늘이 형성된 구간이 많아 햇볕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산책객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추월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 주변을 살펴야 한다.

서곶근린공원은 징매이고개 생태통로와 중구봉, 천마산 등을 잇는 인천둘레길 2코스의 경유지이기도 하다. 다만 공원 밖 둘레길은 오르내림이 있는 산지형 트레킹 코스여서 평탄한 공원 트랙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볍게 달릴 때는 공원 내부의 약 1km 순환 트랙을 중심으로 거리를 설계하고, 둘레길은 별도의 걷기 코스로 구분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동선을 반복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거리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서곶근린공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RUN 2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한 바퀴 1km, 도심 속 순환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2

'롱비치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서해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해안형 공원이다. 바닷가를 따라 길이 1.2km, 평균 폭 50m의 기다란 형태로 조성돼 있어 복잡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게 달리기 좋다. 공원 끝까지 달린 뒤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동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바다 쪽에는 투명 난간을 설치해 달리는 동안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 한쪽으로는 서해와 인천대교가 펼쳐지고, 주변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경관이 이어져 바다와 도시가 교차하는 풍경을 만난다. 산책로가 대체로 평탄하게 이어져 초보 러너도 비교적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지만, 바닷바람이 강한 날에는 체감온도와 달리기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옷차림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해가 지면 수변을 따라 조명이 켜지고 인천대교의 야경이 더해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달릴 수 있다.

RUN 3

청라호수공원

호수를 따라 완성하는 4.3km 순환길

인천 서해구 크리스탈로 59

청라호수공원은 호수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달릴 수 있는 순환형 러닝 코스다. 공원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동선은 총 4.3km로, 출발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여서 별도의 반환 지점을 정하거나 같은 구간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큰 오르내림이 적고 코스의 거리가 명확해 처음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는 초보 러너부터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는 지속주를 계획하는 러너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순환동선은 에코존·전통존·레저존·아트존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네 개 공간을 연결한다. 달리는 동안 탁 트인 수면과 녹지, 청라국제도시의 건축물이 번갈아 시야에 들어와 긴 거리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공원에는 음악분수와 레이크하우스, 청라루, 야외음악당, 로즈가든 등 다양한 시설도 자리해 현재 위치나 남은 거리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삼기 좋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호수의 수면과 도시 풍경을 곁에 두고 4.3km를 온전히 완주하는 성취감이 청라호수공원 러닝의 가장 큰 매력이다.



RUN 4

경인아라뱃길

물길 따라 길게 뻗은 장거리 러닝길

인천 검단구 시천동 158-11 일원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길게 뻗은 물길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선형 러닝 명소다. 인천 서해에서 서울 한강 갑문 인근까지 이어지는 주운수로의 전체 길이는 18km로, 수변 곳곳에 산책로와 자전거길,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다. 정해진 순환 코스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원하는 만큼 달린 뒤 되돌아오는 구조여서 자신의 체력과 목표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기 좋다.

경인아라뱃길은 달린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왕복형 코스이므로 출발 전에 목표 거리와 반환 지점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시천가람터 주변을 가볍게 달리거나 체력에 따라 정서진 또는 김포 방향으로 거리를 늘릴 수 있다.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인접한 구간에서는 주변 통행을 살피고, 수변 안전펜스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탁 트인 물길을 곁에 두고 자신만의 거리와 속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경인아라뱃길 러닝의 가장 큰 매력이다.

안전한 달리기를 위해

01 코스와 거리 확인하기

순환형인지 왕복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목표 거리를 정한다. 왕복 코스에서는 돌아올 때 필요한 체력까지 고려해 반환 지점을 설정한다.

02 충분히 몸 풀기

달리기 전 5~1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며 체온을 높이고 발목과 무릎을 가볍게 움직인다. 처음부터 속도를 내기보다 천천히 달리며 몸의 리듬을 찾는다.

03 일정한 속도 유지하기

옆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시작한다. 기록에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호흡과 몸 상태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조절한다.



일상에 스며든 싱그러운 순간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초록빛 풍경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면 익숙한 동네의 풍경도 새롭게 다가온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산책길부터 꽃과 풀로 채워진 공원, 정겨운 골목의 작은 화단까지.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초록은 바쁜 일상에 잠시 숨을 고를 여유를 건넨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동네 곳곳에 펼쳐진 싱그러운 풍경과 그 안에서 발견한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다.

김O진님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평소에도 저희 집 댕댕이들과 자주 산책하러 찾는 곳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계양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이날은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반려견들과 여유롭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하는 반려견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김O하님



월미공원의 호젓한 산책길을 걸으며 마주한 여름의 초록을 담아보았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만들어 낸 시원한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니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알록달록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며 여름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푸르른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마음의 여유와 청량함을 가득 채우고 돌아온 기분 좋은 여름날의 한 장면입니다.

조O석님



도시텃밭 한 칸을 임대받아 계절마다 여러 농작물을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외 농사가 잘되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름 내내 주말마다 텃밭을 찾아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본 만큼,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참외를 보니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지에 다정하게 달려 있는 쌍둥이 참외를 바라보고 있자니 괜스레 마음까지 든든하고 뿌듯해집니다. 직접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소소한 행복이 있어 텃밭을 찾는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윤O수님



부평구 산곡2동에 자리한 철길정원입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산책길로, 옛 미군의 군수물자를 나르던 철길의 흔적을 배경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한때 버려진 길이었던 곳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단장하면서 지금의 '철길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특히 산곡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정원을 돌보며 매년 계절에 맞는 꽃과 식물을 정성껏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덕분에 봄에는 화사한 꽃길을,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길을, 가을에는 운치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철길의 흔적과 주민들의 정성이 어우러진 철길정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O현님



간재울초등학교 앞 빌라에 살면서 매일 오가는 길에 은근히 눈길을 끄는 작은 풀 화단을 발견했습니다. 빌라 주차장 뒤쪽 벽 한편에 자리하고 있고 에어컨 실외기와 마주 보고 있는 평범한 공간인데도, 그곳에 자라난 풀잎들은 유난히 말끔하고 청량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싱그러운 풍경을 만나는 것이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초록빛 잎들 사이로 보이는 곶감의 모습도 풍경과 제법 잘 어울려 보여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소소하지만 예쁜 풍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김O영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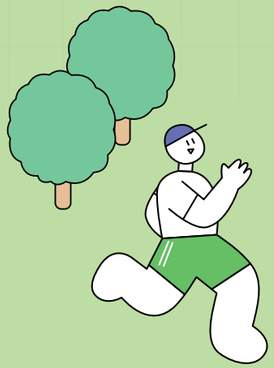


연희공원에서 만난 초록초록한 여름 풍경입니다. 연못을 가득 채운 푸르른 연잎 사이로 하나둘 피어난 연꽃이 어우러져 싱그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이는 연잎과 은은한 꽃빛을 바라보고 있으니 무더운 여름날에도 마음만큼은 한결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일상 가까이에서 만난 초록빛 풍경이 기분 좋은 쉼표가 되어준 여름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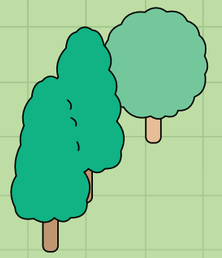
박O리님



덕적도에서 만난 푸른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의 풍경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 해안선을 따라 자리한 소나무 숲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어우러져 잠시나마 일상의 걱정을 잊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소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덕적도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박O진님



매일 산책하며 찾는 연희공원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와 싱그러운 풀잎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연희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산책을 즐겨봅니다. 익숙한 길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작은 변화들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 독자 이벤트 ·

「인천의정소식」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선정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VENT 1

인천의 가을 순간을 소개해 주세요

붉게 물든 공원과 낙엽이 내려앉은 산책길,
황금빛으로 빛나는 들녘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인천 곳곳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한 단풍과 억새, 가을 하늘 아래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선정된 사진과 사연은 「인천의정소식」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❶ QR코드에 접속한다.
❷ 인천의 가을 순간을 첨부하고 사연을 작성한다.

*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초상권 침해 등 위법한 사진은 응모 불가합니다.
* 채택된 사진은 사연과 함께 다음 호 「인천의정소식」에 게재됩니다.

EVENT 2

의회 속 숨은 공간 찾기

인천광역시의회 곳곳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 공간의 이름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맞히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곳은 시민이 본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의 발언과 안건 심의·의결 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❶ QR코드에 접속한다.
❷ 「인천의정소식」 제165호(9,10월호)를 읽고, 공간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서 올려주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이벤트 안내

참여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당첨자 안내 「인천의정소식」 제166호(11, 12월호) 발간 시 개별 연락
문 의 032-440-6136

의회 속 숨은 공간 찾기 이벤트 당첨자 안내

로비 · 김○대님 · 라○웅님
중앙홀 · 차○래님 · 이○구님
· 신○현님 · 이○욱님



독자 소리함

제10대 의회 개원 특집과 상임위원회 소개를 통해 인천시의회의 의정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희님

인천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과 지역 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오○성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천의정소식」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접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심○명님

평소 이름만 알고 있던 의원님들의 모습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니,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진님

인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알게 되면서 시의회가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박○진님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인천의정소식」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임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인천의정소식」을 읽은 후 소감을 적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❶ 엽서 설문조사에 응답 후 우편함에 넣기
❷ 모바일 QR코드 스캔하고 웹진에서 설문조사 참여하기
문의 032-440-6136

설문조사 QR코드

인천시 소식이 궁금하다면?

인천시청 '굿모닝인천'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소식'
경제자유구역청 'IFEZ저널'
상수도사업본부 '물사랑샘소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소식'
인천시립박물관 '박물관풍경'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7.2~무기한
인천남동
40023호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소통홍보정책팀
「인천의정소식」 담당자 앞
TEL 032) 440-6136 FAX 032) 440-8759

인천광역시의회

2 1 5 5 4

잠깐! 문항 응답 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인천의정소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소식지의 독자 참여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응답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성별, 연령대
- 수집·이용 목적: 독자 참여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활용
- 보유기간: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독자 참여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소식지 구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소식지의 우편 구독 및 메일링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응답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택주소, 이메일
- 수집·이용 목적: 소식지 우편 발송 또는 소식지 메일 발송
- 보유기간: 구독 해지 시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식지 우편/메일링 구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르는 선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 :　　연락처 :

자택주소 : 자택 주소를 기재해 주신 분께는 매호 우편으로 「인천의정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무료)

이 메 일 : 이메일을 기재해 주신 분께는 매호 「인천의정소식」 웹진 발행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Q3. 「인천의정소식」을 어떤 경로로 구독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우편 배송
② 공공기관(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 등)
③ 교육기관(학교·도서관 등)
④ 다중이용시설(병원·은행·식당 등)
⑤ 온라인 매체(웹진·SNS 등)
⑥ 기타(　　)

Q4. 「인천의정소식」을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의회·정책 소식을 얻기 위해서
② 문화·관광 등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④ 기타(　　)

Q5. 「인천의정소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Q6. 「인천의정소식」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전문적인 정보 제공　② 다양한 콘텐츠 구성
③ 디자인　④ 시민 참여 이벤트
⑤ 기타(　　)

Q7. 「인천의정소식」을 접한 후 인천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특별한 변화가 없다　④ 대체로 안 좋아졌다
⑤ 매우 안 좋아졌다

Q8. 「인천의정소식」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정보　② 인천시 정책·사업 정보
③ 문화·예술·역사 정보　④ 맛집·관광 정보
⑤ 육아·복지·건강 정보　⑥ 환경·안전 정보
⑦ 기타(　　)

Q9. 「인천의정소식」을 읽으신 소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 다음 호 소식지에 구독 후기가 실린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